



부채적정성평가(LAT) 부담 증가와 과제

노건엽 연구위원, 채원영 연구원

생명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2017년 말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함.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LAT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임. 향후 금리 하락 시 잉여금 비율이 낮은 회사는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생명보험 회사는 신계약의 경우 예정이율 인하,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 등 상품의 금리리스크를 줄여야 하며, 보유계약의 경우 계약 이전, 계약 재매입(Buy-back)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■ 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2017년 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

- 성장세 둔화와 물가 하방 압력 확대로 한국은행은 7월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1.75%에서 1.5%로 인하함
- 국고채 금리는 미·중 무역분쟁 심화 및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,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함
 - 2019년 9월 23일 현재 국고채 1년, 5년, 10년, 30년 금리는 각각 1.277%, 1.402%, 1.462%, 1.428%로 기준금리(1.5%)보다 낮은 상태임(〈그림 1〉 참조)

〈그림 1〉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「ECOS」

-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평가대상준비금 대비 잉여금(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)으로 정의되어 잉여금 비율이 음수이면 LAT 결손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고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함
-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.6%에서 2019년 6월 말 8.4%로 하락함 (<그림 2> 참조)
- 또한 2019년 6월 말 기준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중 5% 이하 회사가 2017년 말에 비해 증가함
 -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1% 이하인 회사는 2017년 말 0개 사에서 2019년 6월 말 3개사로 증가하였으며 1~5%인 회사는 2017년 말 1개 사에서 2019년 6월 말 6개사로 늘어남(<그림 3> 참조)

<그림 2>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과 금리 비교



자료: 각사 경영공시; 금융투자협회

<그림 3>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수준별 생명보험회사 분포



자료: 각사 경영공시; 금융투자협회

■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LAT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임

- IFRS 17에 대비하기 위해 LAT 평가방법을 2017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변경하여 2019년 6월 말은 유동성프리미엄을 '산업스프레드의 80%' 적용하고, 평가금액은 P(55)¹⁾를 적용함(<표 1> 참조)
 - 할인율은 회사별 운용자산이익률의 과거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'미래운용자산이익률'에서 IFRS 17과 동일하게 '평가시점 무위험수익률'에 '유동성프리미엄'을 가산함
 -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단계적 적용으로 산업위험스프레드 100%에서 80%로 하향조정함
 -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P(50)에서 P(55)를 적용함
 - 한편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은 부채평가 시 반영되어 부채평가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
- 금리는 <그림 1>에서 살펴보았듯이 2018년 하반기부터 하락하여 현재는 기준금리(1.5%)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
 -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7년 말 2.467%에서 2019년 6월 말 1.595%로 0.872% 하락함

1) Percentile(55)를 표시한 것으로 금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1,000개 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550번째에 해당 하는 값을 의미함

〈표 1〉 평가시점별 LAT 산출기준

구분	2017년 말 이전	2017년 말	2018년 말	2019년 말	2020년 말
무위험수익률	회사별 미래운용자산 이익률	평가시점의 무위험수익률(국고채 수익률)			
유동성프리미엄		산업위험스프레드 100%	산업위험스프레드 80%	자산운용초과수익률 - 신용위험스프레드(변동성 조정)	
평가 금액 ^{주)}	P(65)	P(50)	P(55)		평균
보험계약대출	자산으로 계상	부채평가 시 미래현금흐름에 반영			

주: P(65), P(50), P(55)는 시나리오로 산출한 가장 작은 값으로부터 백분위수(Percentile) 65, 50, 55에 해당하는 값임
 자료: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 26] 및 부칙

-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는 제도 변화와 더불어 금리 하락으로 인해 LAT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미·중 무역 분쟁 및 한·일 갈등의 심화로 경기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금리는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²⁾
 - 특히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는 향후 금리 하락 시 잉여액 부족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1개사가 2015년에 695억 원, 2016년은 1,061억 원을 추가적립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사례가 있음
- 한편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증준비금 평가도 2019년 말부터 현행 LAT와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으로 금리 하락 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증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임
 -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보장성 상품 중 최저해지환급금 보증,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등 보증이 부가된 계약 중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의 보증준비금은 시나리오 방식으로 평가함
 - 2016년 4월 1일 이전 계약은 수취한 보증비용을 보험료 계산 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함
 - 현행은 과거 통계에 기반한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금리변화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나 평가시점 무위험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금리에 민감하게 변화할 것임
- LAT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LAT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금리 하락기 제도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지원이 선행되어야 함
 - 먼저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,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와 같은 상품 개선 노력이 요구됨

2) 조영현(2019. 9. 2), 「금리 하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」, 『KIRI Report』

- 예정이율 인하 시 보험료 인상 및 해지환급금 하락으로 영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품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고려 시 예정이율 인하는 필연적임
- 현재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은 2.5%로 기준금리(1.5%) 및 국고채 수익률에 비해 높아 향후 IFRS 17 도입 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
- 한편, 이율에 대한 보증이 없거나 낮은 상품 등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를 고려할 수 있음
- 또한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, 계약 재매입(Buy-back)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함
 - 대만 알리안츠가 고금리계약(적용이율 4% 이상)을 대만 중국생명³⁾으로 계약을 이전⁴⁾하였고, 벨기에 대형 생보사(AXA, Ethias)는 고금리 종신보증계약에 대해 10~25%의 프리미엄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구매⁵⁾하는 등 해외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제도가 지원되어야 함
 - 이와 함께 계약 이전과 계약 재매입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
- 한편,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적절한 보증비용 프라이싱 및 최저보증에 대한 헤지가 필요함
 - 보증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적절한 프라이싱이 필요하며, 보증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수취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해야함
 - 또한 일반계정 최저보증이율에 대해서도 변액보험 보증위험과 유사하게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⁶⁾를 통해 손익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음 [kiri](#)

3) 대만의 대표 금융그룹인 CTBC Financial Holding의 자회사로 중국의 중국생명보험(China Life)과는 다른 회사임

4) 보험개발원(2019. 8), 「굿바이, 고금리계약 -대만 보험계약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-」, 『CEO Report』

5) IMF(2018. 3), “Belgium :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- Technical Note-Banking, Insurance, and Financial Conglomerate Supervision”

6) 김세중·김유미(2018. 3. 26), 「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」, 『KIRI Report』